

# 미술관에서 찾은 세계사...예술로 걷는 도시 여정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 세계 일주 미술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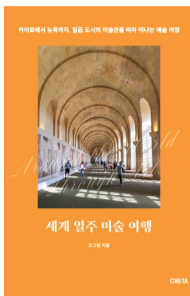
오그림 지음

카이로, 룩소르, 피렌체, 파리, 도쿄, 빈, 뉴욕. 위에 열거한 도시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아니 이들 도시를 하나로 엮을 수 있는 키워드는 무엇일까.

바로 '예술'이다. 이들은 고대 문명의 발상지부터 중세 르네상스의 중심, 그리고 현대 예술의 트렌드를 이끄는 도시들이다. 그리고 이들 도시에는 내로라하는 미술관이 자리한다.

세계를 여행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역사를 매개로 접근할 수 있고, 관광 중심으로 방문할 수 있다. 특정 주제를 토대로 여행할 때 일반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핵심 가운데 하나는 '예술'이다. 그 가운데 미술관은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심미적인 공간이다.

'세계 일주 미술 여행'은 여행하듯 즐겁게 세계 예술의 도시와 미술관을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책이다. 대표 도시들과 대표 미술관이 주 모티브다.



스스로 "예술을 통해 삶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는 사람"이라 일컫는 오그림이 저자다. 그는 "예술은 삶의 정답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보게 만드는 질문"을 던진다는 사실을 배웠다"고 이야기한다.

이번 책에서도 저자는 보이는 것 너머의 이면과 감춰진 이야기를 자신만의 목소리로 들려준다. 현장감과 미술사적 사조 등을 곁들여 풀어내는 예술 이야기는 독자들에게 상상의 나래를 펴게 한다.

이집트의 카이로와 룩소르는 오래된 도시들 가운데 하나다. 피라미드와 스피크스, 오벨리스크와 같은 건축물은 당대 권력을 보여준다. 집단적 상징을 시각화한 건축물이자 당대 사람들이 추구했던 정신문화가 깊이 투영돼 있다.

이집트 미술과 예술 중심에는 나일강이 있다. 비옥한 농토는 농업 생산의 중요한 기지였으며 건축과 예술을 견인한 중요한 토대였다. 농경지와 도시가 공존하는 강 주변에선 지평선을 배경으로 서 있는 피라미드를 볼 수 있다. 오늘날 예술의 상당 부분은 고대와 현대가 공존하는 이집트에서 연유한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고급 향수 브랜드 '산타 마리아 노벨라'가 시작된 곳은 산타 마리아 노벨라 성당과 연결된 도미니코 수도원이다. 13세기 수도사들이 약초, 향신료를 연구해 약차, 향수 등을 만들었다. 중세시대에는 병을

낮게 하거나 악령을 쫓는데 향을 사용했고 이에 따라 노벨라 약국이 1612년 문을 열기에 이른다. 바야흐로 향수 브랜드가 시작됐다. 향의 역사와 피렌체 건축의 결정체인 산타 마리아 노벨라 성당은 피렌체라는 도시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르네상스 예술이 집약된 우피치 미술관은 메디치가의 모시모 1세가 건립한 궁전에서 비롯됐다. 이곳은 수집한 예술품을 보관하거나 메디치가 문화 후원을 실현하는 대표적 장소로 활용됐다. 이후 가문이 쇠퇴하자 후손인 안나 마리아 루이지는 소장품을 토스카나 정부에 기증했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예술 컬렉션을 보유한 미술관은 그렇게 르네상스의 주역 메디치가문이 있어 가능했던 것이다.

프랑스가 문화 예술의 주도권을 쥐기 시작한 것은 17세기였다. 당대를 대표하는 인물은 루이 14세였다. "집이 곧 국가다"라는 절대왕정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였다. 예술은 베르사이유 궁전을 근거지로 확장됐다. 베르



오벨리스크



산타 마리아 노벨라 성당

사이유 궁전에서 '거울의 방' (68m)은 왕권을 상징하는 동시에 프랑스 산업을 상징했다.

파리에는 루브르, 오르세, 오랑주리 등 미술관을 비롯해 20세기 현대미술을 다루는 퐁피두 센터가 있다. 또한 피카소 미술관, 모방 미술관, 파리 시립 현대미술관, 장식 미술관 등이 있다.

도쿄에서 최고 미술관은 국립 서양 미술관이 꼽힌다. 르코르뷔지에가 설계한 이곳은 세계문화유

산으로도 지정돼 있다.

저자는 오스트리아 빈의 분리파 전시관을 비롯해 클림트의 마음의 고향인 아터제 호수도 추천한다. 이밖에 현대미술의 기준이라 할 수 있는 뉴욕미술관, '미국 예술의 얼굴'인 휘트니 미술관 등을 배경으로 들려주는 이야기도 흥미진진하다.

<크레타·2만2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신 게임

마야 유타카 지음, 김은모 옮김

본격미스터리대상을 두 차례 수상한 일본 작가 마야 유타카가 가장 도발적인 문제작 '신 게임'으로 국내 독자들을 만난다. 표지의 귀여운 고양이 일러스트와 달리 작품은 순수와 잔혹, 놀이와 심판 사이의 선을 오가는 서늘한 질문으로 독자를 초대한다.

소설은 한 초등학교 무리 속에서 벌어지는 '신(神) 게임'이라는 놀이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미스터리다. 매일 한 명의 아이가 '신'이 되어 작은 명령을 내리고 다른 아이들은 그 룰에 따라 행동한다. 단순한 장난처럼 시작된 게임은 어느 순간 아이들 사이의 심리적 균열, 보이지 않는 권력, 심리, 죄의식, 판단이라는 무거운 주제로 확장된다.

작가는 이 게임의 구조를 통해 '죄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오래된 미스터리의 화두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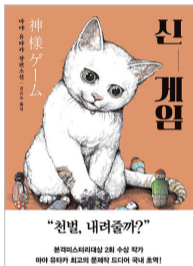
마야 유타카의 작품은 언제나 독자가 알고 있는 추리의 상식을 무너뜨린다. '신 게임' 역시 이야기의 표면 아래에 놓인 다층적 단서들이 맞물리며 독자를 논리와 심리 사이에서 끊임없이 질문하게 한다.

표지에 등장하는 고양이이는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순수함과 잔혹함의 공존을 상징한다. 사랑스러운 그림체와 대비되는 문구 "천벌, 내려줄까?"는 소설이 단순한 성장담이 아니라 윤리적 질문을 던지는 미스터리임을 예고한다.

작품 말미에는 일본 작가 아야쓰기 유키토가 쓴 짧은 해설이 실려 있어 '신 게임'이 과거 어린이책 시리즈 '미스터리 랜드'에서 어떤 파격을 일으킨 작품인지 짚어준다. 그는 옮긴이의 말에서 "이 무시무시한 진상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고 묻는다. 단순한 아동 시리즈의 연장선이 아니라 마야 유타카가 장르의 틀을 완전히 흔들어놓은 작품임을 암시한다.

<내친구의서재·1만6800원>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 제인 오스틴을 처방해드립니다

루스 윌슨 지음, 이승민 옮김

"오만은 우리 스스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와 관련이 있고, 허영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해 주었으면 하는 것과 관계되거든."

제인 오스틴의 글에는 날카로운 풍자와 사람에 대한 애정이 듬뿍 묻어있다. 특별한 것 없는 일상과 평범한 인물들을 그려내지만 섬세한 감정의 결을 따라가다 보면 독자는 어느새 이야기 속에 깊숙이 빠져든다.

제인 오스틴의 열렬한 독자인 아흔 살 루스 윌슨의 첫 책 '제인 오스틴을 처방해드립니다'는 문학이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다시 움직이게 하는지 보여주는 독서 회고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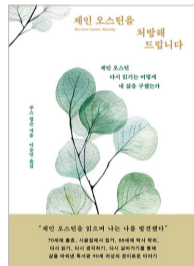
평범한 일상을 살아왔다고 믿었던 루스 윌슨은 예순 살 무렵 메니에르 증후군을 겪으며 삶의 의미가 흔들리는 순간을 맞는다. '무탈하다'고 여겼던 일상이 낯설게 느껴지자 그는 오랫동안 사랑해온 제인 오스틴의 작품을 다시 펼친다.

70세에 출판을 선언하고 사물집에 머물며 읽기에 몰두한 끝에 그는 88세에 독서 연구로 시드니대 박사학위를 받았고, 90세에 첫 책을 출간했다. "잃어버린 나의 목소리를 되찾겠다"는 다짐으로 시작된 다시 읽기는 어느새 자신의 삶을 다시 구성하고 이해하는 치유의 작업이 되었다.

책에서 저자는 여섯 편의 오스틴 소설을 '삶의 렌즈'로 다시 비춰본다. '오만과 편견'에서는 밝은 결혼 플랫폼 아래 드리운 그림자를 읽어내며 자신의 관계 경험을 되짚는다. '노생거 수도원'에서는 공감적 읽기가 어떻게 마음을 확장하는지 스스로에게 시험하고, '이성과 감성'에서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믿었던 삶의 균형을 다시 배우게 된다.

<북하우스·1만9800원>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 백투더퓨처, 역사의 시계를 돌리다

김상은 지음

중·일 갈등,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휴전, 우크라이나-러시아 종전 협상, 북한 무력시위...

매일 쏟아지는 국제 뉴스는 심각한 사안이라도 금세 타임라인 아래로 밀려난다. 속보만으로는 세계가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오늘날의 긴장과 충돌 대부분 20세기 냉전에서 뿌리 내린 만큼 과거의 맥락을 거슬러 올라갈 때 비로소 지금의 뉴스가 제자리를 찾는다.

동아일보 국제부 데스크 김상은 기자의 '백투더퓨처, 역사의 시계를 돌리다'는 뉴스라는 1차 기록을 토대로 세계사의 중요한 장면들을 다시 불러낸다. 국제정세를 단순한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역사적 흐름 속에 놓아보며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어떤 역사적 궤적 위에서 이어져 왔는지 보여준다.

책은 미국의 한국전쟁 개입, 중국의 인전상륙작전 반발, 북중 관계의 형성 과정, 북러 밀착의 배경, 한-쿠바 수교가 남북 외교에 미친 변화 등 동아시아 현대사의 주요 국면을 따라간다.

각 사건이 서로 어떤 구조적 힘에 의해 연결되어 있는지 설명하고 오늘의 뉴스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를 살펴본다. 예컨대 북한의 행동은 늘 갑작스러워 보이지만 그 배경에는 중국-러시아와의 오랜 전략 조정이 있다. 중국-대만 갈등이나 미중 반도체 전쟁 역시 냉전 이후의 세력 재편과 맞닿아 있다.

저자는 취재 기록과 풍부한 역사 자료를 바탕으로 복잡한 국제정치의 배경을 명확하게 정리한다. 단기 뉴스에 흔들리지 않고 세계사의 큰 구조 속에서 현재를 바라보는 시야를 제시하며, 지금의 국제 뉴스가 '순간적 사건'이 아니라 오래된 움직임의 연속임을 강조한다.

<초록비책공방·2만1000원>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www.kwangshin.ac.kr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For the Lord  
To the World  
주님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입학문의 >>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학부 대학원  
신학과 한국어교육학과 유아교육과 복지상담융합학부 음악학부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